
2020년 제1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5. 1. ~ 5. 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1.	시청률	0.047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는 K-방역의 우수성과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코로나 퇴치를 위한 인도적 측면에서의 남북보건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남북대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점이 돋보였다. 4.27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정부에서 남북철도 기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연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경색된 남북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기획의도가 함의돼 있다는 점이 탁월했다. <단박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이해관계와 달라진 협상 전략을 다루었고, <북마크 TV>는 코로나19 사태 속 북한이 강조하는 면역력 높이는 건강정보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이해관계와 달라진 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협상전문가와 함께 노래 퀴즈로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간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박톡>에서는 노래 퀴즈로 북미관계, 북중관계, 북러관계를 다루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친서로 인한 우호적 제스처가 북미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뒷얘기, 북한의 이중적 태도가 협상기술의 하나라는 점을 예시하며 협상전략 기술을 언급했다. 코로나19는 북미관계에 있어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슈로 이를 계기로 공동대응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미협상국 신설은 미국과의 협상 준비가 되었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의 북한 유입은 중요한 외화벌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바로 국경 봉쇄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동의한 상태이며 대북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교류가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가능해진 면이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G20 화상회의에서 제안하였다. 이같은 러시아의 행태는 러시아가 경제를 많이 의지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대북제재를 푸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미중협상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북미, 남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북마크TV>는 코로나 예방에 선인장 활용을 권장하고 올바른 약 복용법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실상을 엿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5. 1.	시청률	0.013

【총 평】

<최일구의 정말>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초대하여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과기부의 중점 과제와 결과, 추진 중인 과제, 비전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과학 강국임을 입증한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을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였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며,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을 프로그램에 잘 녹여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관련 청사진을 엿볼 수 있게 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기부에 대한 신뢰와 투자 및 연구 개발 발전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힘이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강국'을 주제로 과학기술을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역할과 우주개발로 나누어 다루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다루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시청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분야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위한 데이터 개방과 앱개발 지원'을 예시로 들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학계의 대응과 노력은 진단키트 등을 예로 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차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과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계의 역할을 밀도 있게 다루고 백신 개발을 위한 약물재창출 성과 활용과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에서 일반 실험용 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상식을 전달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최고 수준의 진단과 대응 능력을 단기간에 갖추 수 있게 된 배경을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와 기업의 바이러스 연구와 투자 성과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 기술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등 일상생활 속의 불편을 해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주개발시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에서는 천리안 2B호에 관해 소개하고 위성의 운영 현황과 활용 분야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우주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관해 강조했다. 2월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 2B호 위성은 현재 안정적으로 안착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연구개발(R&D) 혁신부분에서는 2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혁신방안에 관해 소개하고 바람직한 연구 문화에 관해서 강조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5. 2.	시청률	0.196

【총 평】

자연을 닮은 지혜와 선조들의 삶이 남해 바다로 향한 한반도 끝자락, 경남 남해군의 봄 풍경과 봄의 소리를 ‘남해의 숨은 보물을 만나다’를 통해 잘 담아냈다.

남해 다랭이 마을의 봄 풍경과 계단식 논, 약초 채집 활동, 금산의 보리암과 산장, 양떼 목장 등을 돌며 고유의 소리를 담았다. 평소 남해가 주는 이미지와는 조금 색다른 것이어서 참신했고 제목 그대로 남해의 숨겨진 보물들을 찾은 느낌이라 잘 어울렸다.

남해라는 지역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미지 소모도 많이 된 곳이라 별 기대 없이 시청했는데 막상 시청하고 나니 또 다른 남해를 본 것 같았다.

【구성 및 내용】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남해의 숨은 보물을 만나다’는 전통과 아름다운 남해의 청정 자연을 풍요롭게 표현한 방송이었다. 전체적으로 구성 흐름이 매끄러웠고, 남해의 아름다움과 다랭이 마을, 땅두릅, 황칠나무 숲, 금산, 보리암, 구두산 양떼, 등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그리고 남해의 봄 푸르름이 잘 묻어났다.

경남 남해의 대자연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농촌 부부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본다는 프리젠테이션 소리 설치 미술가가 담아낸 경남 남해의 풍경소리였다. 소리 설치 미술가의 유년 시절 추억과 고향의 봄 소리는 슬픈 청아함이 묻어났고, 남해의 새로운 모습을 재탄생 시켜 시청자들에게 새로움을 안겨주었다. 봄 향기가 영상에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섬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전통과 아름다운 남해의 청정 자연을 풍요롭게 표현했다.

도입부에서 남해 특유의 절경을 먼저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두릅 캐는 부부를 만나 황칠나무 새순 채취 작업 등을 소개하고 수확한 작물로 식사를 하는 장면까지 다루었다. 두릅을 캐는 특유의 소리가 잘 담겼고 두릅을 캐서 포장하는 작업까지 흥미로웠다. 또한, 두릅으로 차린 반찬들을 시식하면서 진행자의 ‘맛에도 겹이 있다’는 맛에 대한 표현을 살린 것이 인상적이었다.

금산으로 이동해서 보리암 내부의 아름다운 풍경과 부처상도 소개하여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 보리암에서 잠시 머물다 인근 산장에서 산장지기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산장의 위치가 너무 절묘해서 소소한 점심식사가 그 어떤 만찬보다 더 돋보였다. 특히, 헬리캠을 사용해 금산 전체 풍경을 잘 잡아냈고 식탁에서 내려다보는 금산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했다. 남해의 양떼 목장에 들러 양털 깎는 작업과 양의 발톱 깎는 작업에서 목장 주인의 양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경남 남해의 세 가지 장소를 들렀는데 모두 아주 다른 풍경을 선사해 주어 눈이 즐거웠고 이동한 장소에서도 특별한 에피소드가 다들 알차게 녹아 있었다.

프로그램	월 좀 아는 의사 K닥터		
방송일자	2020. 5. 3.	시청률	0.145

【총 평】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초래하고 국가 재난상황을 촉발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월 좀 아는 의사 K닥터>는 수용자의 필요성을 감안한 기획이었다.

‘알고보면 무섭지 않은 바이러스의 진실’ 주제로 코로나19의 실체를 짚어본 뒤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해 결코 무섭지만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방송일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날이어서 자칫 방역체계가 느슨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식성’을 발휘했다. 정부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발표했으나 개학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경각심을 일깨웠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의학정보를 쉽게 전달했다. 또, K닥터의 강연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Q&A식 구성이 몰입도와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의 뜻은 2019년도의 코로나바이러스란 의미이며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인 이유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 바이러스의 모양새가 돌기 등으로 인해 왕관 혹은 태양과 유사한 것으로부터 왔다는 설이 있다. 코로나19는 어떤 성격의 바이러스인지 사스나 메르스 등과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그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강조해 그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구성이 돋보였고 막연한 공포감을 불식시키는 메시지가 부각되어 긍정적이었다.

코로나의 정체와 전이 과정 등을 살펴본 뒤 역대 감염병이 극복됐듯이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고,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인간이 박쥐의 서식지를 침범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또, 바이러스가 소멸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었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비말감염을 막고 전파력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심을 하되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침을 하면 침방울이 5-10m 날아간다는 내용과 바이러스 생존기간, 역대 바이러스 감염병의 사망률을 제시하며 사스가 10%인데 비해 코로나는 1.4%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식당이나 카페 이용도 테이크아웃이 좋다.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검사비용이 무료이며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개인적인 검사를 받으면 유료이지만 확진 판정 시 환불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3.	시청률	0.154

【총 평】

‘아내를 되찾은 서산 달래 살이’는 백혈병 투병 중인 아내를 데리고 아내의 고향인 충남 서산행을 택한 새내기 농사꾼의 귀농 이야기와 순애보를 담았다. 생사의 기로에 선 아내가 고향인 서산 운산면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건강도 호전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달래와 시작한 인생 2막에는 남편과 구순이 넘는 노모의 정성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인생 2막을 달래로 시작한 주인공은 새내기 농사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야무진 따뜻한 농심을 보여주었다. 톡 쏘는 매운 맛과 향을 지닌 달래처럼 봄나물의 사랑스러움과 주인공 부부의 고난 극복 과정을 잘 담아냈다.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달래의 국내 생산량 60%를 서산에서 생산한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함께 해온 부부의 애뜻한 정이 더욱 빛을 발했고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준 귀촌 생활이 더욱 돋보였다. 아내는 아직 완치가 아니어서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이지만 다른 주인공들보다 더 밝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 보여서 계속 감동을 받았다.

【구성 및 내용】

부부가 귀촌한 이유와 아내의 투병기 등이 소개되었고 달래 세척 및 포장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또, 평소 식사와 병을 선고 받을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부부의 가축 관리와 기타 농사 작업, 부부의 산책 등 일상적인 모습이 소개되었다.

주인공 아내가 투병중이라 친정 엄마의 거주지로 귀촌해 친정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90세가 넘는 노모도 건강하셨고, 두 모녀가 딸의 아픔에 담담한 분위기여서, 투병에 대한 마음가짐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일주일 선고를 받고 온 아내의 소소한 농촌 일상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마음의 평화가 병을 낮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아내를 되찾은 서산 달래 살이’는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귀촌을 한 상황이라 섬세한 내레이션 조절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배려하면서 화면속의 감동을 잘 표현해 주었다. 부부가 가축들을 돌보고 고구마 하우스를 돌보는 소소한 일상이 펼쳐졌는데 부부의 서산 유기방 가옥 산책이 인상적이었다. 수선화 밭에 부부가 잠시 멈춰 앉아서 투병 당시를 언급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장면이 가슴 뭉클했다.

아내가 너무 건강한 모습이라 외래 진료 가는 날 장면이 없었다면 환자인 것도 모를 뻔했고, 입천장 뼈가 녹을 정도의 염증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귀가하는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부부가 얼마나 더 큰 고비를 넘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사는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 검진을 다녀오고 서산의 바닷가에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KTV 온라인 세상		
방송일자	2020. 5. 6.	시청률	0.054

【총 평】

<KTV온라인 세상> 이슈Q는 레이디가가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기부금 모금 온라인 자선콘서트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선포, 영상Q는 서울지하철 역사와 미터법 사용, 베스트Q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라면먹방을 다루었다. 특히, 최근 국내외 이슈를 파노라마식 매거진 형태로 정리하고 흑백영상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사회상을 반추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의미있는 기획으로 보여진다.

특히, 금주의 핫 이슈를 다룬 이슈Q와 보고 싶은 SNS 영상을 다룬 영상Q, 베스트Q 등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것은 효과적인 구성방법이었다. 또, '온라인 세상이 궁금하다면'은 귀농다큐 제작팀이 라면 끓이기 대결을 벌여 젊은층의 사고와 행동을 엿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 이슈Q → 레이디가가의 코로나19 기금 모금과 N번방 사태
레이디가가는 세계 보건기구 자선단체와 손잡고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금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자선 콘서트를 주도했다. 팀 쿡 등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통화를 통해 약 430억 원의 코로나19 기부금을 모았다. 과거 소라넷부터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는 웹하드 등을 통해 작금의 N번방 사태까지 이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엄벌을 지시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끝까지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영상Q → 서울지하철 역사와 미터법 사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체계인 미터법, 미터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위가 달라 힘들었다. 또한 가게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달라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64년 계량단위를 미터법으로 전격 시행하였고 미터법 실시 이후 통일된 규격을 사용하여 혼란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하지만 미터법이 정착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척관법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저울 눈금을 속이는 등의 행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 베스트Q →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라면먹방
CNN이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보도한 뒤 뒤이어 후계문제를 거론한 것을 계기로 북한 내 권력서열 중심에 있는 인물을 하나하나 소개했는데 시의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었다.

【참고사항】

06:16 디지털 성범죄 역사를 되짚어보는 내용의 자막에서 소라넷은 2016년 4월 폐지인데 20106년 3월 폐지로 잘못 표기되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5. 7.	시청률	0.003

【총 평】

<국민리포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및 무기력감을 뜻하는 코로나블루 현상, 5·18의 기억과 아픔이 담겨있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개관, 온라인 직거래 사기 급증에 따른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수칙, 그 외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통한 국립문화시설 부분 재개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봄철 졸음운전 예방 등 생활정보 소식이 돋보였다.

특히, '온라인 직거래 주의는 사기 피해를 줄이는 예방효과와 경고효과가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블루 퇴치를 위한 각종 사업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등 정책알림이 정보도 유익했다.

【구성 및 내용】

■ '코로나 블루' 호소 늘어, "대화가 예방법"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울과 불안, 불면, 피로감 등의 증상들이 발생한다. 코로나 블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각 지자체들이 케이팝 스타들의 댄스 배우기 동영상 배포, 지역민을 위한 치유 요가, 베란다 음악회, 사랑의 꽃나눔 행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도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5.18 탄흔 '전일빌딩',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40년 전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아픔이 담긴 전일빌딩이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아 시민문화공간, 5.18 기념공간, 콘텐츠 공간 등으로 재구성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탄환과 탄피, 기관총, 그리고 5.18의 참상을 사진과 영상자료로 만나볼 수 있다.

■ 온라인 직거래 사기 급증, 주의해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89,797건으로 2018년에 비해 21.3% 증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는 그 사기피해 역시 개인의 책임으로 고도화된 사기수법에 당하기 쉽다.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수칙과 더치트(thecheat.co.kr)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기 이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생활 속 거리두기, 국립문화시설 부분 재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이 부분적으로 운영이 재개되는데, 박물관과 미술관은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개인관람, 사전예약관람으로 운영되며 도서관은 복사 서비스만 재개된다. 대출 및 반납은 국립세종도서관만 가능하다.

■ 104세 엄마에게, 60세 막내딸이 쓴 편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0세 막내딸이 104세 엄마에게 영상편지를 전했다. 열 번째 막내딸을 출산하면서 엄마는 노산으로 인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5. 7.	시청률	0.011

【총 평】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는 “코로나19 시리즈 기획, 힘내라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은 국가경쟁력과 국가위상 제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역 시스템을 소개하고 높은 시민의식을 강조한 뒤 워크 스루 부스를 소개하면서 희망적인 마무리를 했다. 특히, 자가격리 및 감염자의 역학 추적, 진단검사와 병원 치료 등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K-방역이 성공적이었음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전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 방역 모범 사례가 된 ‘South Korea’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힘내라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은 전 세계에서 우리 방역 시스템과 기구를 인정하는 자부심, 우리 방역제품의 해외 수출, 정부의 특허출원과 수출지원, 워크스루 진단부스의 세계 표준화로 글로벌 기술 선도 등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빠른 진단검사 및 진단 검사 장비 등의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 대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신뢰받게 되었다.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웹 화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자문을 구하고 있고 진단 키트와 검사 장비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의료진 및 환자가 감염에 안전하게 검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정부주도의 치료제 4종이 임상실험 단계이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항체 개발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 극복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세계 최고일 만큼 슬기롭게 대처하고 많은 진단 검사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 또한 실력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랜드K 워크스루 제작업체는 “의료진들이 방호복 입고 땀 흘리고 상처를 입은 채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든 덜어주고자 “진단 시 피로도 경감을 위한” 마음에서 제작이 시작됐음을 전했다. 안전과 정책, 경제’ 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워크스루의 개발과 제조 과정도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흥미로웠고 우리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특히, 여러 명의 의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의 인터뷰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압축한 당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지금의 비상사태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검역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었는데 공감과 설득력이 높았다.